

# 슈퍼모던 패션의 보호기능에 관한 연구

김완주<sup>†</sup> · 이금희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Protection Functionality of Supermodern Fashion

Wan-Joo Kim<sup>†</sup> · Keum-Hee Lee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8. 4. 25.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tection functionality of supermodern fashion which is shown by responding to supermodern environment, where non-spaces increases in the 21st modern city.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drawn for supermodern environment theory. For the study, he researcher used existing study and specialized book and analyzed photograph materials by selecting them in specialized fashion book, internet site and designer's collection. The works from 1995 S/S collection to 2008 S/S collection a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supermodern design is adopting the shape of high-functional element, electronic device, protective device to protect wearer in non-space. Second, in order to mentally protect individual anonymous leadership of interaction is granted by adopting hood, veil or mask. Third, supermodern design is creating independent and user-based space by shape transformation in change of urban environment. Fourth, in order to protect wearer through camouflage or concealment, camouflage pattern or neutral color are used.

**Key words:** Supermodern design, Protection functionality, Non-space, Camouflage; 슈퍼모던 디자인, 보호 기능, 비공간, 카무플라주

### I. 서 론

현대가 정보화와 하이테크 기술 도입에 의한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사회적 생산과 소비구조는 전지구적인 자원의 고갈 및 파괴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상기후, 산성비, 오존층 파괴, 공해, 사막화, 온난화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대인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한 위협과 더

불어 도시적 삶이 가져다주는 각종 인공환경적 위협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지속성이 없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통과 공간인 비공간에서 우연적인 상해나 타인의 의도적 공격에 의한 신체적 해악 등 여러 가지 물리적, 심리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현대 도시 공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비공간에 대응하고 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학문적 관심과 창조적 활동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마르크 오제(Marc Auge)는 도시간의 이동성 증가와 전이적 공간인 비공간이 양산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슈퍼모던' 사회라 명명하였다(Auge, 1995). 슈퍼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noble1336@naver.com

본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모던 사회에서 도시 삶의 문제 대부분은 전이적 공간과 관련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패션칼럼니스트들은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패션현상을 슈퍼모던 패션이라는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Bolton, 2002).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디자이너들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패션을 창조함으로써 슈퍼모던 환경문제에 반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비공간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는 초현대 사회의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의 인체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보호 개념으로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김원주, 이금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전·후의 슈퍼모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호기능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분석하여 변화되고 있는 패션환경과 보호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 사회의 환경변화와 보호 기능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 슈퍼모던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기능의 특성을 비공간에서의 보호, 익명성을 통한 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 위장과 은폐를 통한 보호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대 디자인에서 보호기능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현대 환경변화에 관한 문헌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그 특징을 찾아냈다. 그리고 슈퍼모던 디자인의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패션 관련 서적과 시각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진 자료로는 패션 관련 전문서적 및 디자이너 컬렉션, 브랜드 컬렉션,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는 마르크 오제의 슈퍼모던 환경이라는 인식론을 배경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패션비평가인 앤드류 볼튼(Andrew Bolton)이 정의한 '슈퍼모던 패션'이라는 분석의 틀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보호 기능의 특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대상으로 마르크 오제가 슈퍼모던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1995년부터 최근에 발표된 2008년 S/S 컬렉션까지 분석하였다.

## II. 보호기능의 이론적 고찰

### 1. 의복의 보호기능

의복의 보호기능은 가장 원시적인 의복 착용의 동

기와 관련이 있다. 의복을 착용하게 된 동기로는 주로 신체장식, 정숙성, 보호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강혜원, 1993). 이 중 보호의 동기는 인류가 아열대의 따뜻한 기후에서 열대와 온대, 냉대로 이동과 정착을 계속하면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양식으로 발현되었다.

의복의 보호기능은 첫째, 신체보호에 있다. 의복은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여 신체를 보호해 주는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숲이나 곤충, 맹수 등 자연계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장소와 상황에 맞는 보호기능을 위한 의복이 디자인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냥이나 농경, 목축 등의 생존을 위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의복을 고안해내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벌어지는 위험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해, 적으로부터의 공격, 전쟁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되어 각종 작업복, 갑옷, 특수 기능의 유니폼 등의 영역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의복의 신체보호기능의 최첨단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우주복일 것이다. 우주복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을 우주에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다(강혜원, 1993).

둘째, 심리적 보호를 들 수 있다. 초기의 심리적 보호기능은 악령이나, 신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한 주술적·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인지능력과 과학의 발달과 함께 주술적 의미의 기능은 점차 쇠퇴했으나 문명의 고도화와 함께 각종 심리적 위험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의복의 심리적 보호기능은 더욱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인의 신체적 위험은 항시 심리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현대인은 불의의 사고, 질병, 타인의 침해, 환경오염 피해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신체적 위험은 단지 물리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현대 의복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 2. 현대 환경변화와 보호기능

산업화 이후 현대의 환경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의 특징을 위험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벡, 1992/

2006). 근대화 초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제공됐지만 사회가 진화할수록 위험 요소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위험은 산업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넘어 예측과 계량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위험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개인은 과거 국가, 마을, 공동체에 의한 안정감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위험은 개체화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개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대 도시 공간의 맥락에서 살펴 볼 때에도 산업 사회 초기의 위험을 넘어서는 광범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르크 오제의 인식론적 기초인 비공간의 과잉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공간의 과잉은 기존의 지역적이고 공동체적 삶과는 다른 유형의 삶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전·후하여 이동공간이나 비장소는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빠른 회전을 수용하기 위하여 급격히 늘어났다. 이동공간이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성은 공공 및 사회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Bolton, 2002). 운송수단의 증가로 공해와 소음이 늘어났고 이동공간을 통한 빠른 이동은 업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잦은 이동과 이동공간에서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인에게 이동공간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나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집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간을 포함하는 도시의 삶은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은 항상적인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내뿜는 공해는 통행자의 호흡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은 인구가 모이는 기차역이나 전철역, 행단보도, 지하도 등은 소매치기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현대 환경변화에서 첫째, 개인은 익명화된 공간에서 자주 자신이 위축되고 방어적인 심리상태를 느끼게 된다. 둘째, 도시인은 이동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접하게 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의 기후 변화라는 적응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셋째, 신체적인 위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공항이나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는 항상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은 흔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감시받는 불쾌한 감정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며, 통행자와 일시적이거나 어느 정도 시선교차가 불가피하고 익명적인 타인의 응시는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 3. 현대 환경의 변화와 슈퍼모던 디자인

초현대의 도시적 공간에는 통행자의 신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사고, 소매치기, 상해, 기후변화, 공해 등 수 없이 많은 위험을 직면하고 사는 것이 현대 도시인의 삶이다. 특히 이동공간인 비공간에서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심리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공간에서 유형·무형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상황의 전환을 위해 고안되고 있는 패션유형은 최근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현상은 단지 디자이너의 선도적인 작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패션문화에 커다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적응으로 슈퍼모던 패션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조건에 대응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과 우연적인 위험이나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한 신체적 보호와 심리적 보호개념이 확대되어 디자인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은 표현의 미학 뒤에 내재되어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신체의 두려움과 개인적 안전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 해주고, 디자인의 독특한 외형은 착용자에게 자신 노출의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소음을 차단하고, 오염을 걸러내고 체온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토드 헤인스(Todd Haynes)의 영화 ‘안전(Safe)’에 등장하는 캐럴 화이트(Carol White)는 과일 포장지, 신문, 심지어 새 소파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 의사의 조언을 구하던 그녀는 ‘무독성 지역’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들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캐럴은 등근 덮개로 만든 밀폐된 방에서 마스크와 산소통을 착용하고 살게 되면서 만족한 삶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그림 1). 이와 같이 도시와 이동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패션의 신체적 보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방어는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관련이 있다. 현대의 도시인은 익명화된 비공간 속에서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며 신체적인 위험 뿐 아니라 자신이 상해나 강탈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강박관념이나 타인의 응시나 공공기관의 감시 등에 대한 불안감에 직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의 보호기능 강화는 단지 신체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수준에서 고안되고 있다.

21세기는 전자공학의 진보와 함께 휴대용 환경으로서의 의복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이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입은 이래로 이런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왓킨스(Watkins)는 「의복: 휴대용 환경(Clothing: The Portable Environment)」에서 의복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늘날 생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O'Mahony & Braddock, 2000). 기술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의복의 보호기능은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신체에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호기능의 일환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착용 가능한 기계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다니엘 쿠퍼(Daniel Cooper)는 공해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카멜레온 재킷을 디자인하였다(그림 2). 이 재킷은 공해 정도를 나타내주기 위해 수동적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재킷의 전면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장된 검출기는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을 검출하여 공해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파란색을, 심각한 수준의 공해 지역에서는 오렌지색을 띠도록 제조되었다. 공해를 방어하기 위해 재킷을 착용하면 네오프렌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착용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네오프렌과 얼굴 사이에 있는 솜이 든 펠트 필터를 통해 주입되고, 숨을 내쉴 때는 두 개의 작은 밸브를 통해 빠져 나가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비공공간에서 심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다. 카라 매카티(Cara McCarty)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 금지영역이 축소됨으로써 착용자는 안전한 느낌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두려움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반면에 후드패션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였다(McCarty, 1999). 이러한 착용들은 개인을 테러의 표적에서 테러의 가해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프뢰겔(Flügel)은 “만약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은 불리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Flügel, 1930). 이러한 관점에서 마스크와 후드가 달린 의복은 현대 대도시의 위협이 만연한 세계에서 힘과 용기를 표현함으로써 도시 방어복의 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와 후드패션은 이러한 전이적 공간에서 증가되는 감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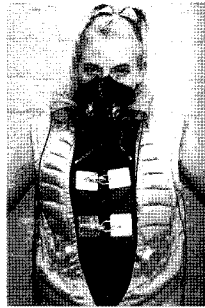
동공간에서 감시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감시는 대표적인 전이적 공간인 공중에서 더욱 특별하다. ‘플랜스포팅(Planespotting)’에서 스티븐 보드(Steven Bode)의 논평처럼 국제공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은 감시권력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너무나 익숙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Bode, 1997). 세계 대부분의 국제공항들은 카메라와 X-ray 스캔과 컴퓨터 탐색기 등의 감시 네트워크는 쉽 없이 여행객들을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화된 감시는 익숙한 것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보호작용에서 전형적으로 후드는 효과적인 심리적 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후드디자인을 착용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잃게 된다. Flügel(1930)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감정이나 행동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고 두려움이나 수줍음에 의해 방해되었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노상강도나 도둑, 암살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의한 용기는 어떤 경향, 특히 성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구속을 줄여준다.”라고 지적하였다(Flügel, 1930). 그러나 정체성과 책임의 결핍은 항상 사회에 대한 적의적인 행동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셉(Joseph)에 의하면, 마스크로 가려진 개인은 그 자신의 요소를 잃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봉사에 자신의 초자아를 협력케 하는 것이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Joseph, 1986). 예를 들면, 폭동이나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를 한 참여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정의의 명분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시위에서, 후드와 마스크는 금지되고 있다. 이에 아담 드롭(Adam Thorpe)과 조 헌터(Joe Hunter)는 얼굴을 덮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범죄와 무질서 법령에 대한 대응으로 ‘상어 코트(shark coat)’를 디자인하였다. 크리스찬 러셀(Kristian Russell)에 의해 일러스트로 표현된 작품을 보면 눈을 강조한 상어의 외관을 띄고 있어 기괴한 느낌을 주며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지퍼를 사용하여 얼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도시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슈퍼모던 패션에서 나타나는 보호기능은 신체적·심리적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신체적 공간과 심리적 정보의 소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슈퍼모던



<그림 1> Todd Haynes. (1995).  
영화 'Safe'의 한 장면

자료출처: 마리 오마호니, 사라 E. 브래독. (2000/2002). *테크노 텍스타일*. p. 34.



<그림 2> Daniel Cooper. (1995).  
카멜레온 재킷

자료출처: 마리 오마호니, 사라 E. 브래독. (2000/2002). *테크노 텍스타일*. p. 34.



<그림 3> Vexed Generation,  
Sharkcoat, 1999-00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84.

패션의 범주에 포함된 디자인들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을 창조함으로써 도시환경에서 신체적·심리적 방어 기능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모던 패션에서 나타나는 보호 기능의 디자인 작품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III. 슈퍼모던 패션디자인의 보호기능 특성

앤드류 볼튼은 「슈퍼모던 의복(The Supermodern Wardrobe)」에서 슈퍼모던 패션의 특징을 기능성, 모듈 시스템, 이동성, 은신처, 보호성, 카무플라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도시환경의 위험성이 초현대 특징인 비공간의 증가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써 의복의 기능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Bolton, 2002). 이러한 분류는 슈퍼모던 패션의 특성이 초현대 환경에 대응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앤드류 볼튼의 분석을 토대로 II장에서 살펴본 현대 사회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용으로 슈퍼모던 패션디자인의 보호기능을 비공간에서의 보호, 익명성을 통한 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 위장과 은폐를 통한 보호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비공간에서의 보호

슈퍼모던 패션은 도시환경 사이에서 안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호공간을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증가하는 범죄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개인 착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최소한 강력한 수단을 적용하여 발

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감지능력을 높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디자인은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전투 혹은 전쟁의 은유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슈퍼모던 패션의 소재와 스타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씨피컴퍼니(CP Company)는 1998-99년 F/W '도시적 보호(Urban Protection)'라인지에서 고음의 개인 안전 경보를 부착한 '먼치 재킷 (Munch Jacket)'을 발표하였다. 경보는 범죄 현장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격자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1999-00년 F/W 컬렉션에서 '솔로 질렛 (Solo Gilet)' 베스트를 내놓았다(그림 4). 이 작품은 여성용 베스트로 어두운 도시 거리 또는 좁은 골목을 다닐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뒤쪽에 빛을 발산하는 토치(torch)를 부착하였다. 이것은 공격자의 눈에 직접 빛을 비추어 공격자가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비록 크게 보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패닉 경보와 토치로 공격자들을 혼란시키고 두려워하게 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씨피컴퍼니의 작품은 개인에게 '방어적인 보호복' 기능을 넘어 '공격적인 보호복'의 역할로 더 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은 2000-01년 F/W 컬렉션에서 재킷 안에 포켓을 제작하기 위해 옆면이 펼쳐지는 '포켓 재킷(Pocket Jacket)'을 개발하였다(그림 5). 의복 안에 내장된 포켓은 개인의 다양한 종류의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기능과 도시생활에서 잠재적인 도둑들과 소매치기들에게 보이지 않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벅스드 제너레이션(Vexed Generation)의 2001-02년 F/W 컬렉션은 분주한 도시 도로에서 개인의 가시성을 높여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



<그림 4> CP Company, Solo Gilet,  
1999-00 F/W  
자료출처: www.cpcompany.com/archive



<그림 5> Mandarin Duck, Pocket  
Jacket, 2000-01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75.



<그림 6> Vexed Generation, SABS,  
2001  
자료출처: Smith, C. & Topham, S.  
(2005). *Xtreme fashion*, p. 52.

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디자인 된 것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그리고 보행자들이 도시교통의 위험스런 공간을 통과할 때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의 하나인 <그림 6> 재킷은 투명한 막을 통하여 주변 시야를 잃지 않고 얼굴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독특한 후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디테일은 좁은 길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때 확실한 도로 방향 조작을 위해 완전한 주변 시야를 요구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교통 환경으로부터 위험과 소음, 오염 등에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을 창조함으로써 도시환경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2. 익명성을 통한 보호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착용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칼라나 후드, 베일을 지닌 의복으로 심리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개인들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패드를 붙이거나 절개되지 않은 소재로 의복을 만들어 전이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개인적 안전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군대용과 보호복을 만들기 위한 고성능 테크니컬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에게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탄 소재의 의복이나, 후드, 베일, 포켓 등의 사용과 공공기관의 유니폼이나 경찰, 군복 등의 디자인 특성 차용은 착용자를 수동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힘 있는 대용

자로 만들어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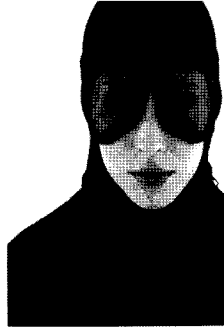
영국 브랜드 와이엠씨(YMC)의 디자이너 프레이저 모스(Fraser Moss)는 1999-00년 컬렉션에서 후드패션 시리즈를 발표했다.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는 착용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자의 머리와 어깨를 덮을 수 있게 하였다. 후드의 앞과 뒤에 프레스 단추를 부착하여 착용자 자신을 감추거나 드러내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의복과 분리되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후드는 얼굴모습을 더욱 어둡게 하기 위해 깔대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그림 7). 또한 모스(Moss)는 눈을 제외하고 얼굴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후드가 달린 재킷이나 착용자의 얼굴과 손을 가려 외부세계와 차단시킬 수 있는 양모 스웨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 개인의 얼굴과 손은 해부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표현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프뢰겔의 주장과 상통하는 면을 지니며(Flügel, 1930),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또 다른 고립을 시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보여주고 있다. 씨퍼컴퍼니는 후드와 연결된 마스크 모양을 한 '고글 재킷(Goggle Jacket)'을 출시했다(그림 8). 태양에 대한 보호라는 외관상의 기능으로부터 탈피한 선글라스의 기능은 마스크의 한 형태로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실 내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후드 디자인도 마스크처럼 개인의 약점을 숨기고 자존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백스드 제너레이션의 후드디자인은 착용자에게 힘



<그림 7> YMC, Detachable hood,  
1999-00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73.



<그림 8> CP Company, Goggle Jacket,  
2000-01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84.



<그림 9> Vexed Generation, Ninja  
Fleece, 1995-96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82.



<그림 10> Vexed Generation, Liner Jacket,  
1997-98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60.



<그림 11> Vexed Generation, Zip Spiral  
Balaneck, 1999-00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125.

을 부여하는 능력을 대변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완전히 지퍼가 올려 질 경우, 넥스드 파카는 곤충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위압적이고 위협적이기 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부세계와 분리되는 외관을 지니고 있다. 유사한 형태는 런칭 초기 1995-96년 F/W 컬렉션 ‘닌자 플리스(Ninja Fleece)’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9). 그리고 1997-98년 F/W ‘라이너 재킷(Liner Jacket)’<그림 10>과 1999-00년 F/W 컬렉션에서 보여준 ‘지퍼 와선 밸러빅(Zip Spiral Balaneck)’<그림 11>과 같은 의복들은 착용자들의 힘을 증가시키는 높은 깃과 후드를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 3.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

많은 슈퍼모던 디자인은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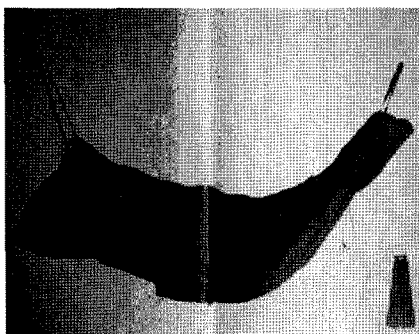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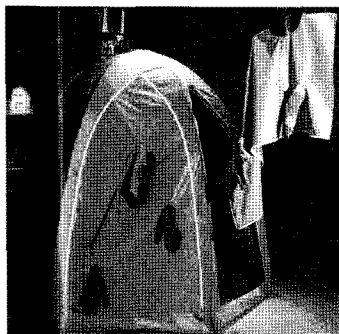
형태의 변형을 시도함으로써 보호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루시 오르타(Lucy Orta)를 들 수 있다. 그녀의 구난의복(Refuge Wear) 컬렉션에서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텐트 역할을 하며 개인적 환경을 제공하며 필요와 긴급 사태에 따라 의복으로도 변형되어질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극단적 상황에서 패션과 은신처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 난민에게 이동성을 제공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텐트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난민들에게 물이나 의약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인 ‘신체의 건축적 구조- 의류 컬렉티브6(Body Architecture-Vetement Collective6)’에서 패션아이템이나 운반 백으로 변형되는 후드와 소

매를 지닌 텐트 형태의 구난 의복을 디자인하였는데 이 작품은 판초로 변형되어 낮에는 의복으로 착용하고 밤이 되면 거주 공간으로 변형될 수 있다(그림 12).

씨피컴퍼니는 2000-01년 F/W 컬렉션 ‘도시 보호(Urban Protection)’에서 다크그린 후드망토가 끈으로 늘려낼 경우 해먹으로 변형되는 ‘아마카(Amaca)’ 작품을 제작하였다(그림 13). 이 작품은 도시적 유목 생활을 위해 환경에 따라 변형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S/S 컬렉션에서는 안락의자로 변환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 투명한 브라이트 블루 폴리우레탄 재킷과 쿠션으로 변할 수 있는 PVC 베스트를 생산했다(그림 14-15). 씨피컴퍼니의 해먹으로 변형되는 망토나, 의자로 변형되는 재킷은 변형을 통해 환경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복의 보호적 기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 4. 위장과 은폐를 통한 보호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도시의 물리적·심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의 목적은 단지 개인을 익명적인 망토로 가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가 도시적 환경에 흡수되어 가시적으로 혼동되도록 뉴트럴 톤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루리(Lurie)는 그녀의 저서 「의복의 언어(The Language of Clothes)」에서 “착용자가 도시적 환경에 흡수되고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디자이너들은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돌, 시멘트, 매연, 구름 낀 하늘, 그리고 젖은 포장도로를 반영한 컬러인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였다(Lurie, 1981). 이러한 현상은 슈퍼모던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현대 도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



<그림 12> Lucy Orta, Body Architecture-Vetement Collective6, 2000  
자료출처: 마리 오마호니, 사라 E. 브래독. (2002/2004). 스포츠 테크, p. 69.

<그림 13> CP Company, Amaca Hooded cloak-hammock, 1999-00 F/W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16.

<그림 14> CP Company, Jacket, 2001 S/S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19.



<그림 15> CP Company, Armchair, 2001 S/S  
자료출처: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 19.



<그림 16> Griffin, Blade cut Jacket, 2001 S/S  
자료출처: Braddock, S. E. & O'Mahony, M. (2005). Techno textiles2. p. 67.



한 건축 재료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러를 사용한다. 즉 건물외관을 위한 벽돌의 화이트와 레드 브라운, 콘크리트의 그레이 그리고 아스팔트의 블랙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법은 카무플라주(Camouflage)에서도 나타난다. 카무플라주란 현혹과 감춤의 모든 국면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단어는 베일로 시야를 가린다는 뜻의 불어 표현인 'camouflier'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현혹적 은폐'의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Chesney, 1941). 일반적으로 카무플라주는 '디스럽티브 패턴(Disruptive Pattern)'으로 군인과 장비를 숨기기 위한 패턴이다. 컬러와 톤의 대조기법은 멀리보이는 사물의 그림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연상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기린, 호랑이, 표범 등의 밝게 채색된 패턴으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패턴으로 숨기고 있다.

현대 패션디자이너에 의한 카무플라주의 패턴 사용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 패션디자이너들의 사용은 군복의 독특한 스킵함을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카무플라주의 위장, 은폐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환경에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군대 디스럽티브 패턴 카무플라주를 자주 차용하였으며, 패턴의 컬러는 지붕 슬레이트의 톤, 레드, 도로의 그레이, 흙의 다크 브라운과 그림자에서 블랙의 컬러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적인 컬러를 조합하고 있다. 이는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이 전이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컬러로 카무플라주 패턴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프 그리핀(Jeff Griffin)의 2001년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블레이드 컷 재킷(Blade cut Jacket)'은 의복의 외부 층을 레이저로 절개한 모습으로 표현하여 사람들 사이에 위장된 내용을 폭로하는 은유적인 작품이다(그림 16). 다크 브라운과 그린으로 만들어진 이 재킷은 도시의 공원이나 정원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거리에서도 위장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들은 동일 계열의 컬러나 블랙, 다크 블루의 컬러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어두운 컬러는 높은 도시 빌딩 그림자 속에 흡수되어 군중 속에서 사람들 눈에 덜 띄이게 되며 도시 위장복의 한 방법으로 착용자 보호를 위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가 현대 도시의 비공간에서 야기되는 노출, 감시, 소음, 오염 등의 슈퍼모던 환경에 대응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대 도시환경에서 증가되고 있는 비공간은 인간의 이동을 매개하여 인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지만 한편 인간관계를 일시적, 단편적으로 만들고 지속적 유대와 상호작용의 결여로 인하여 다양한 물리적·심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모던 환경에서 패션디자이너는 환경대응의 측면에서 새로운 패션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슈퍼모던 패션디자이너의 보호기능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적인 비공간에 대응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과 우연적인 위험이나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한 신체적 보호를 위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소재나 디테일을 시도하며 상징적인 수단 혹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착용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칼라나 후드, 베일을 지닌 의복으로 도시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호 기능을 위해 고성능 테크니컬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디자인의 독특한 외형은 착용자에게 자신 노출의 매개체를 만들어주며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기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셋째,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형태변형을 통해 사회적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개인적 환경을 구축하여 패션과 은신처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착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도시의 물리적·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카무플라주 패턴이나 뉴트럴 톤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익명화시키고 도시공간이나 군중 속에서 위장과 은폐를 통한 착용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기능의 강화는 개인에게 착용자 중심의 환경구성 내지는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신체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의 과학을 활용하고 있다.

슈퍼모던 패션환경에 대한 보호기능의 디자인은 단지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착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거나 자체적인 정보수집과 처리 능력을 구비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주도적인 지위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착용자 중심의 환경구성은 현대 패션의 지속적 경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은 의복의 신체적 기능을 넘어서 심리적 기능에 주목하여 많은 슈퍼모던 디자이너들이 의복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여 착용자의 심리적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후드, 베일, 마스크, 카무플라주나 심지어 신체적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방탄소재의 사용까지도 모두 착용자의 심리적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복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단지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안정감, 주체의식, 연대감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패션디자인의 동기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갈수록 개인과 사회, 집단과 집단과의 다양한 심리적 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슈퍼모던 디자인의 심리적 측면의 보호기능을 강조하는 특성은 미래 패션의 경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원. (1993).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김완주, 이금희. (2008). 슈퍼모던 환경에서 나타나는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특성. *복식문화연구*, 16(1), 100-114.
- 오마호니 마리, 브래독 사라 E. (2000). *테크노 텍스타일*. 허성희, 김정규 역 (2002). 서울: 예경.
- 오마호니 마리, 브래독 사라 E. (2002). *스포츠 테크*. 차임선 역 (2004). 서울: 예경.
- 백, 율리히. (1992).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2006). 서울: 새물결.
- Auge, M. (1995). *Non-pa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 Verso.
- Bode, S. (1997). Planespotting. In Bode & Millar (Eds.), *Airport* (p. 133). London: The Photographers' Gallery.
-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London: V&A.
- Braddock, S. E. & O'Mahony, M. (2005). *Techno textiles2*. London: Thames & Hudson.
- Chesney, C. H. R. (1941). *The art of camouflage*. London: Robert Hale Ltd.
- CP Company. (2000). Solo Gilet. 1999-00 F/W Collection. Retrieved March 20, 2005, from <http://www.cpccompany.com/archive>
- Flügel, J. 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Ltd.
- Joseph, N. (1986). *Uniforms and nonuniforms: Communication through clothing*. Westport: Greenwood Press.
- Lurie, A. (1981). *The language of clothe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McCarty, C. (1999). Offence/Defence. In Nunley, J. W. & McCarty, C. (Eds.), *Mask: Faces of Culture* (p. 290).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O'Mahony, M. & Braddock, S. E. (2000). *Techno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 O'Mahony, M. & Braddock, S. E. (2002). *Sportstech*. London: Thames & Hudson.
-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Berg.
-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erg.
- Smith, C. & Sean, T. (2005). *Xtreme fashion*. London: Prestel.